



# 전 세계 감염병 발생 동향

## Global Infectious Disease Outbreak Update

### 요약

#### 1. 홍역, 캐나다 Measles in Canada

##### 캐나다 홍역 유행이 1년 이상 지속되어 홍역 퇴치국 지위 상실

- 캐나다에서 '24년 10월에 시작된 홍역 유행이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홍역 퇴치국 지위가 상실됨 (25.11.10.), 이에 따라 미주지역 전체의 홍역 퇴치 지위(free of endemic measles)도 함께 상실됨. 캐나다 내 홍역 환자는 총 5,162명(11.1.기준)이며, 대부분 지역감염 추정 사례로 이 중 89%가 백신 미접종 상태임

\* 동일한 홍역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최소 12개월간 지속 순환(circulation)

- 캐나다 보건당국은 최소 12개월 동안 홍역 발생이 없을 시 홍역 퇴치국 인증 지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주지역 회원국에 대한 감시체계 및 신속대응 역량강화, 실험실 진단의 지속성 확보, 의심사례에 대한 PCR검사 시행 등 지역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함
- 최근 국내 홍역 발생은 안정기\*에 있으나(11.1.기준), 홍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여행 전 홍역 유행국가 확인 및 홍역백신 접종(2회) 완료 후 출국 권고, 의료인은 홍역 유행국가 여행력 있는 환자 진료 시 홍역이 의심되면 신속한 신고 요청

\* '25년 총 76명 발생, (40주) 1명 → (41주) 0명 → (42주) 2명 → (43주) 1명 → (44주) 0명

#### 2. 보툴리눔독소증, 미국 Botulism in USA

##### '25년 8월~11월 미국 12개 주에서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총 15명 발생

- '25년 8월부터 현재까지 미국 12개 주(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켄터키,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워싱턴)에서 총 15명의 영아가 보툴리눔독소증으로 입원함. 확진자는 모두 동일한 회사에서 제조된 영유아용 분유를 섭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아 연령은 생후 16일에서 157일 사이로, 현재(25.11.11. 기준)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 분유 제조업체는 리콜 조치를 시행함  
-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예비조사 결과, 보툴리눔독소증 확진 영아가 섭취한 분유와 동일한 제조 번호를 가진 분유의 개봉된 캔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생성하는 박테리아가 검출되었으며, 추가 검사 결과가 몇 주 내에 나올 예정임
- 영아 보툴리눔독소증은 *C. botulinum* 등 포자형 세균이 영아 장관 내에서 정착·독소를 생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건이 발생함. 이 중 약 20%는 생꿀 섭취와 관련되며, 분유의 경우 포자 검출 사례가 있지만 발생 원인으로 인과 관계가 확인된 경우는 아직 없음
- 국내 보툴리눔독소증은 산발적 발생이 있었으며, 이 중 '19년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발생이 1건 있었음. 예방을 위해 ▲보관식품은 햇볕을 피하고 냉장보관, ▲저장 식품은 10분 이상 끓이기, ▲캔의 용기가 부풀 경우 열지 말고 곧 바로 폐기,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및 진단받을 것을 권고

### 3. 치쿤구니야열, 쿠바 Chikungunya in Cuba

#### 쿠바에서 7월에 치쿤구니야열 첫 발생 보고 이후 약 4개월 만에 2만 명 발생

- '25년 7월부터 현재까지(11.1. 기준) 쿠바에서 치쿤구니야열 환자 20,062명(사망 없음) 보고됨. 주요 발생 지역은 쿠바의 서부 및 중부 지역에 위치한 아바나, 마탄사스, 카마케이, 시엔푸에고스, 아르테미사, 비야클라라임
- 쿠바는 최근 10년 동안 치쿤구니야열 발생이 보고된 적 없었고, 현재 치쿤구니야열, 뎅기열, 오로 푸체열이 동시 유행 중으로 아르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음
- 보건당국의 치쿤구니야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매개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대생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발열 환자 감시 등의 조치를 지속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치쿤구니야열 해외 유입 사례만 보고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방문 후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치쿤구니야열 유행 지역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인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려 치쿤구니야열 적극 진단에 협조할 것을 권고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프랑스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in France

#### 프랑스 남부지역의 가축 및 야생동물에서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 항체 최초 검출

- '25년 9월 프랑스 남부 지역의 가축 및 야생동물에서 크리미안콩고출혈열(CCHF) 바이러스 항체를 최초로 검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매개 진드기-동물 간 CCHF 바이러스 순환이 존재함을 확인함
- CCHF 인체감염 사례 발생 지역은 기존에 아프리카, 발칸반도, 중앙아시아 등에서 최근 서유럽(스페인, 포르투갈)으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프랑스에서도 CCHF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개 진드기 감시 강화, 가축 및 야생동물에 대한 혈청학적 모니터링 지속 등 경계 강화가 필요함
- 현재까지 국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발생 보고는 없으나, 유행 지역 여행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및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유행지역 방문 후 발열 및 기타 출혈열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신고 권고

\* 발열과 오한, 권태감, 두통, 전신 근육통·관절통, 오심, 구토, 설사 등

# 1. 홍역, 캐나다 Measles in Canada

## 발생 상황

캐나다에서 '24년 10월에 시작된 홍역 유행이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라 홍역 퇴치국 지위가 상실됨('25.11.10.), 캐나다 홍역 사례의 대부분이 지역감염 추정 사례이며, 89%가 백신 미접종이며 백신 접종률 낮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발생

- WHO/PAHO(Pan American Health Organization)는 제5차 홍역·풍진 퇴치국 모니터링 및 재인증위원회 연례 회의(11.4.~7.)를 통해 캐나다의 최근 홍역 유행 상황을 근거로 1998년 이후 유지해 오던 캐나다의 홍역 퇴치국 지위가 상실됐다고 밝힘('25.11.10.). 이에 따라 미주지역 전체의 홍역 퇴치 지위(free of endemic\* measles)도 함께 상실됨<sup>1)2)</sup>

\* 동일한 홍역 바이러스 유전자형이 최소 12개월간 지속 순환(circulation)

- 이번 결과는 캐나다에서 '24년 10월부터 시작된 홍역 유행이 1년 이상 지속됨에 따른 것으로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까지도 지역감염 등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

- '25년(~44주, 11.1.기준) 캐나다의 홍역 환자는 10개 주를 중심으로 총 5,162명(사망 2명) 보고됨<sup>3)</sup>. 지역별로는 온타리오주에서 2,393명(46%), 앨버타주에서 1,946명(38%)이 보고되어 두 지역에서 전체 환자의 84%가 발생함

- 대부분 지역감염 추정 사례(98%, 5,040명)이며, 89%가 백신 미접종 상태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행 발생함

\* (캐나다 홍역 백신 1차/2차 접종률(%))<sup>4)</sup> ('18) 90/87, ('19) 90/87, ('20) 90/83, ('21) 90/83, ('22) 92/79, ('23) 92/79, ('24) 9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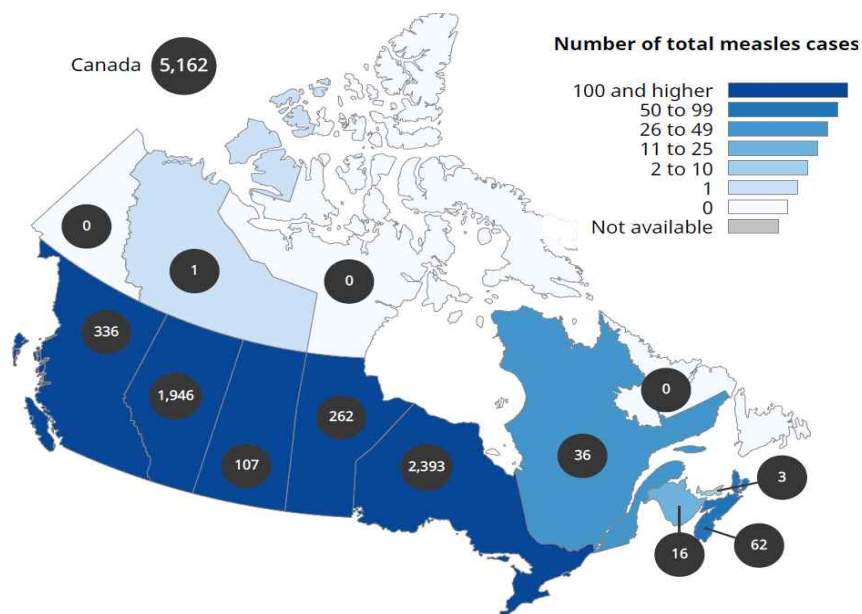


그림 1-1. '25년 캐나다 주별 홍역 발생 현황 (캐나다 보건부, 11.1.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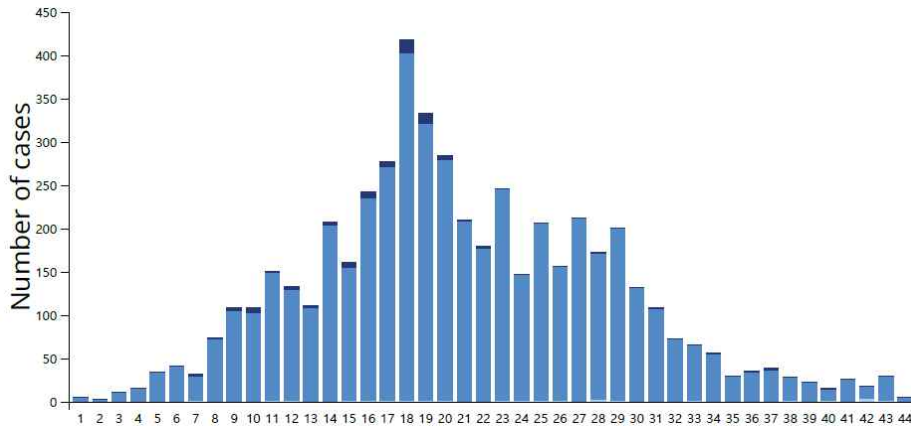


그림 1-2. '25년 캐나다 주간 홍역 발생 현황 (캐나다 보건부, '25.11.1. 기준)

### 상황 평가

- 캐나다 보건당국은 최소 12개월 동안 홍역 발생이 없을 시 홍역 퇴치국 인증 지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미주지역 회원국에 대한 감시체계 및 신속대응 역량강화, 실험실 진단의 지속성 확보, 의심사례에 대한 PCR검사 시행 등 지역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함
- 최근 국내 홍역 발생은 안정기에 있으나, 홍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여행 전 홍역 유행국가 확인, 출국 전 홍역백신 접종(2회) 완료, 의료인은 해외여행자 진료 시 홍역 사례를 염두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신속한 신고 당부

- 캐나다 보건당국은 최소 12개월 동안 홍역 발생이 없을 시 홍역 퇴치국 인증 지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더불어 과거 '18년 베네수엘라와 '19년 브라질의 홍역 유행에 따른 미주 지역(PAHO)의 퇴치 지위가 상실됐을 때도 지역 내 협력 및 적극 대응을 통해 '24년도에 PAHO 퇴치 재인증에 성공한 바 있음
- 미주지역 10개국에서 총 12,596명(11.7.기준)의 홍역 확진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약 95%는 캐나다, 멕시코, 미국에서 발생함. 홍역으로 인한 사망사례는 총 28명(멕시코 23명, 미국 3명, 캐나다 2명)으로 보고됨. WHO/PAHO는 미주지역 회원국에 대한 감시체계 및 신속대응 역량강화, 실험실 진단의 지속성 확보, 의심사례에 대한 PCR검사 시행 등 지역 가이드라인 이행을 권고함
- 최근 국내 홍역 발생\*은 안정기로 보이거나(11.1.기준)<sup>5)</sup>, 홍역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해외여행 전 홍역 유행국가 확인, 출국 전 홍역백신 접종(2회) 완료, 의료인은 해외여행자 진료 시 홍역 사례를 염두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신속한 신고 당부<sup>6)</sup>

\* (국내 홍역 발생 현황, '25년 총 76명 발생) (40주) 1명 → (41주) 0명 → (42주) 2명 → (43주) 1명 → (44주) 0명

1) PAHO calls for regional action as the Americas lose measles elimination status (WHO/PAHO, '25.11.10.)  
 2) Statement from the Public Health Agency of Canada on Canada's Measles Elimination Status (캐나다 보건부, '25.11.10.)  
 3) Week 44 (October 26 to November 1, 2025) Measles and rubella weekly monitoring report (캐나다 보건부, '25.11.10.)  
 4) Measles vaccination coverage - Immunization Data Portal (WHO, '25.11.10.)  
 5)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25.11.10.)  
 6) 홍역 대응 지침 (질병관리청, '24.4.17.)

## 2. 보툴리눔독소증, 미국 Botulism in USA

### 발생 상황

· '25년 8월 이후 미국 12개 주(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켄터키, 미네소타, 노스캐롤라이나, 뉴저지, 오리건, 펜실베이니아, 로드아일랜드, 텍사스, 워싱턴)에서 총 15명의 영아가 보툴리눔독소증으로 입원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동일 회사에서 제조된 영유아용 분유를 섭취한 것으로 확인됨. 영아 연령은 생후 16일에서 157일 사이로, 현재('25.11.11. 기준)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

· '25년 8월 이후 미국 12개 주\*에서 총 15명의 영아가 보툴리눔독소증으로 입원한 것으로 확인됨. 해당 영아들의 연령은 생후 16일에서 157일 사이로 현재('25.11.11.)까지 사망 사례는 보고되지 않음<sup>1)2)3)4)</sup>

\* (발생한 주(명수)) 캘리포니아(2), 텍사스(2), 일리노이(2), 애리조나(1), 켄터키(1), 미네소타(1), 노스캐롤라이나(1), 뉴저지(1), 오리건(1), 펜실베이니아(1), 로드아일랜드(1) 워싱턴(1)

-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산하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치료 및 예방 프로그램은 동일한 영유아용 분유를 섭취한 영아에서 A형 보툴리눔독소증 감염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함. 이후 캘리포니아 공중보건부의 예비 검사 결과에 따르면, 보툴리눔독소증 확진 영아가 섭취한 분유와 동일한 제조번호를 가진 분유의 개봉된 캔에서 보툴리눔 독소를 생성하는 박테리아가 검출됨. 美 CDC 및 FDA, 주 및 지역 파트너와 함께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여러 주에서 남은 분유를 수집하여 분석 중으로 추가 검사 결과가 향후 몇 주 안에 나올 예정임<sup>3)</sup>

- 美FDA는 확진자 수, 질병의 심각성, 역학적 상황을 고려하여 해당 회사 대상 자발적 리콜을 권고하였고, 11월 8일 해당 회사는 환아들이 섭취한 것으로 알려진 분유 2종에 대한 리콜을 시작하기로 함. 해당 제품은 온라인과 대형 소매업체를 통해 유통되었으며,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됨<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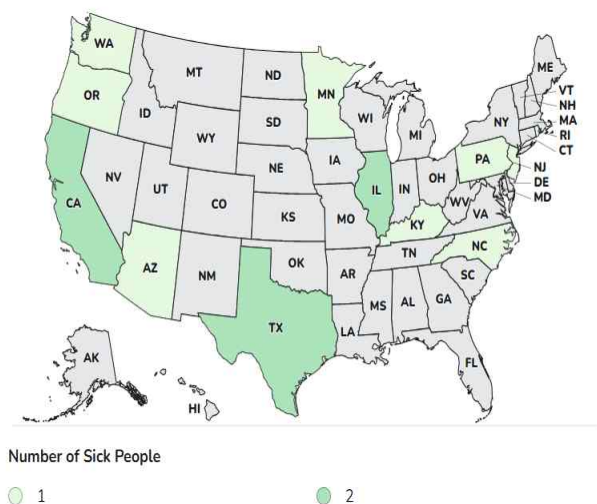


그림 2-1. '25년 8월~11월 미국 보툴리눔독소증 발생 관련 영유아용 분유 상표(좌) 및 발생지역 분포 (우)<sup>7)</sup>  
(美CDC, '25.11.11.)

## 상황 평가

- 영아 보툴리눔독소증은 *C. botulinum* 등 포자형 세균이 영아 장관 내에서 정착·독소를 생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건의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이 중 약 20%는 생꿀 섭취와 관련되며, 분유의 경우 포자 검출 사례가 있지만 발생 원인으로 인과 관계가 확인된 경우는 아직까지 없음
- 국내에서는 산발적 발생이 있었으며, 예방을 위해 ▲보관식품은 햇볕을 피하고 냉장보관, ▲저장 식품은 10분 이상 끓이기, ▲캔의 용기가 부풀 경우 열지 말고 곧 바로 폐기,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및 진단

- 영아 보툴리눔독소증은 *C. botulinum* 등 포자형 세균이 영아 장관 내에서 정착·독소를 생성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사람 간 전파는 일반적으로 없으며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임.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건의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 중 약 20%는 생꿀 섭취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됨. 현재까지 확인된 위험 식품으로는 꿀이 유일하며, 따라서 12개월 미만 영아에게 꿀 섭취 금지가 가이드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음<sup>5)6)7)</sup>
- 반면, 분유는 영국(2005년), 중국(2017년) 등 포자 검출 사례가 있었으나 환자에서 검출된 균과 제품에서 검출된 균이 일치하지 않아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는 없었음<sup>5)6)</sup>. 그러나 이번 상황은 동일 제품 섭취 공통점이 매우 뚜렷하여 만약 인과관계가 확인될 경우 이후 제조·공급망 안전성 평가 및 감시 강화가 요구될 수 있음
- 국내 보툴리눔독소증은 '03년 3건, '04년 4건, '14년 1건, '19년 1건, '20년 1건(실험실 노출), '23년 1건이 발생하였으며, 이 중 '19년 영아 보툴리눔독소증이 발생하였음<sup>8)</sup>. 당시 역학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감염원은 확인되지 않음<sup>9)</sup>.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 준수를 권고함. ▲보관식품은 햇볕을 피하고 냉장보관, ▲저장 식품은 10분 이상 끓일 것, ▲캔의 용기가 부풀 경우 열지 말고 곧바로 폐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 및 진단<sup>10)</sup>

1) Botulism Infant Botulism Outbreak Linked to Infant Formula, November 2025 (美CDC, '25.11.8.)

2) Botulism Investigation Update: Infant Botulism Outbreak, November 2025 (美CDC, '25.11.11.)

3) Outbreak Investigation of Infant Botulism: Infant Formula (November 2025) (美FDA, '25.11.11.)

4) Multistate infant botulism cases in USA with suspected link to ByHeart infant formula: 13 hospitalizations under investigation (BEACON BIO, '25.11.8.)

5) Infantile Botulism (StatPearls, '25. 4.6.)

6) Infant Botulism: In Search of *Clostridium botulinum* Spores (Current Microbiology, '24.8.13.)

7) In Response to a Broader FDA Investigation, ByHeart Initiates a Voluntary Recall of Two Batches of Infant Formula (美FDA, '25.11.8.)

8) 보도참고자료 | 영아 보툴리눔독소증 환자 감염경로 조사중 (질병관리청, '19.6.18.)

9) The First Reported Case of Infant Botulism in Korea: Treatable Infantile Neuromuscular Disease (JKMS, '20.4.20.)

10) 제1급감염병 두창·페스트·탄저·보툴리눔독소증·야토병 대응지침 (질병관리청, '25.1월)

### 3. 치쿤구니야열, 쿠바 Chikungunya in Cuba

#### 발생 상황

'25년 7월부터 현재까지(11.1. 기준) 쿠바에서 치쿤구니야열 환자 20,062명(사망 없음) 보고됨. 현재 쿠바에서 치쿤구니야열, 뎅기열, 오로푸체열이 동시 유행 중이며 특히 치쿤구니야열이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음

- '25년 7월부터 현재까지(11.1. 기준) 쿠바에서 치쿤구니야열 환자 20,062명(사망 없음) 보고됨.<sup>1)2)3)</sup> 쿠바에서 최근 10년 동안 치쿤구니야열 발생 보고된 적이 없었으나<sup>2)</sup>, '25년 7월 쿠바의 서부 지역인 마탄사스에서 첫 발생 보고 이후 치쿤구니야열 발생이 지속되고 있음
- 주요 발생 지역은 쿠바의 서부 및 중부 지역으로 아바나(Habana), 마탄사스(Matanzas), 카마게이(Camagüey), 시엔푸에고스(Cienfuegos), 아르테미사(Artemisa), 비야클라라(Villa Clara)에서 많은 발생이 보고됨
- 현재 쿠바에서 치쿤구니야열, 뎅기열, 오로푸체열이 동시 유행 중이며 특히 치쿤구니야열이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이고 있음. 쿠바 보건당국에 따르면 10월 중순에 보고된 주간 발열 증상자는 13,000명 이상으로, 이는 아르보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음을 시사함  
 ※ 최근 주간 쿠바의 뎅기열 의심 발생률은 인구 10만 명당 20.66명(11.3. 기준)이며, 시엔푸에고스, 관타나모, 마탄사스, 시에고 데 아빌라, 산크티 스피리투스, 마야베케, 비야 클라라, 피나르 델 리오 주에서 높음
- 쿠바 정부는 치쿤구니야열과 뎅기열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증 뎅기열과 오로푸체열 발생은 최근 감소 추세로 보임. 전국의 매개 모기 번식지 중 62%가 아바나, 산티아고 데 쿠바, 카마게이, 비야클라라에 집중되어 있음



그림 3-1. '25년 1월~9월, 전 세계 치쿤구니야열 발생 분포 (WHO DON, '25.10.3.)<sup>4)</sup>  
\* WHO 보고건 및 보건부 공식자료만 반영, 브라질 등 일부 지역 제외

## 상황 평가

- 보건당국은 치쿤구니아열 발생률 증가 요인으로 과거 치쿤구니아열 유행 경험이 없어 면역력이 낮을 가능성을 제기하였고,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매개체 방역 활동을 강화함
- 국내에선 치쿤구니아열 해외 유입 사례만 보고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방문 후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치쿤구니아열 유행 지역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인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려 치쿤구니아열 적극 진단에 협조할 것을 권고함

- 쿠바 보건당국은 치쿤구니아열 발생률이 증가하는 주요 요인으로 과거 치쿤구니아열 유행이 없었기 때문에 면역력이 낮을 수 있음을 언급함. 또한 실제 치쿤구니아열 환자 규모가 보고된 환자 수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자발적인 감염 예방 관리의 중요성을 언급함<sup>5)</sup>
  - 보건당국은 치쿤구니아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매개체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의대생의 지원을 받아 적극적인 발열 환자 감시 등의 조치를 지속하고 있음
- 한편, 쿠바 동부 지역은 아직까지 치쿤구니아열 유행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최근 허리케인 멜리사 피해 복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상대적으로 모기 방역 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 추후 대규모 유행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특히 동부의 산티아고 데 쿠바 지역은 멜리사로 인한 피해 외에도 물 부족, 쓰레기 축적 등 심각한 위생 문제가 있으며, 현재 치쿤구니아열 유행 지역인 아바나, 비야클라라, 카마게이와 함께 전국에서 발견된 모기 번식지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美CDC는 쿠바에서 치쿤구니아열이 유행함에 따라 지난 9월 26일에 2단계 여행건강경보(강화된 예방조치 실행, Practice Enhanced Precautions)을 발령함<sup>6)</sup>
- 최근 쿠바 내 치쿤구니아열과 뎅기열 등 전염병 확산으로 우리 여행객 및 교민의 보건·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외교부는 한국시간 11월 12일 21시부로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를 발령함<sup>7)</sup>
  - \* 1단계 여행유의(신변 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피),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출국 권고, 4단계 여행금지
- 국내에서는 치쿤구니아열 해외 유입 사례만 보고되고 있으며, '13년 첫 유입 사례 후 '24년까지 70명, '25년(~11.11.) 7명 신고되었고<sup>7)</sup>, 동남아시아(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방문 후 감염된 사례가 가장 많았음. 치쿤구니아열 유행 지역 여행 시 모기물림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입국 후 2주 이내 의심 증상(발열, 관절통, 발진 등)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료인에게 해외 여행력을 알려 치쿤구니아열 적극 진단에 협조할 것을 권고함<sup>8)</sup>

1) Cuba refuerza su Lucha contra el chikungunya y el dengue (Informed, 쿠바보건부 국립의학센터, '25.11.5.)

2) WHO PAHO ARBO Portal (WHO/PAHO, '25.11.11)

3) Durán alerta: Chikungunya, dengue y oropouche mantienen en vilo a Cuba (Cyber Cuba, '25.11.5.)

4) Chikungunya virus disease- Global situation (WHO Disease Outbreak News, '25.10.3.)

5) Chikungunya Virus Spreading Nationwide in Cuba (Havana Times, '25.11.8.)

6) Chikungunya in Cuba-Level 2-Practice Enhanced Precautions-CDC (美CDC, '25.9.26.)

7) 쿠바 전역에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 발령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25.11.12.)

8) 감염병 포털, 감염병 통계 대시보드 (질병관리청, '25.11.11.)

9) 보도참고자료 | 질병청 치쿤구니아열 유입대비 상황 점검 (질병관리청, '25.7.29.)

### 4. 크리미안콩고출혈열, 프랑스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in France

#### 발생 상황

'25년 9월 프랑스 남부 지역의 가축 및 야생동물에서 크리미안콩고출혈열(CCHF) 바이러스 항체를 최초로 검출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매개 진드기와 동물 간 CCHF 바이러스 순환 시사

- '25년 9월 발표된 연구 결과, 프랑스 남부 지역의 가축 및 야생동물에서 크리미안콩고출혈열(CCHF)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이 최초로 확인됨. 이를 통해 진드기(CCHF 바이러스 매개체)와 동물 사이에 CCHF 바이러스 순환(Enzootic transmission cycle)이 존재함을 확인함<sup>1)2)</sup>
  - 프랑스 국제개발농업연구센터(CIRAD)가 프랑스 남부 지역의 소 및 야생동물(사슴, 노루, 멧돼지 등)을 대상으로 혈청학적 조사를 실시한('08년~'22년) 결과, 소의 2.04%(176/8,609), 야생동물의 2.25%(49/2,182)에서 CCHF 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되었으며, 특정 지역(피레네오리앙탈, 오프피레네 등)에서 항체 양성률이 더 높게 관찰되었다고 발표함
- 한편, 프랑스 본토에서는 '23년 10월 CCHF 바이러스 매개 진드기인 히알롬마 마지나툼(Hyalomma marginatum\*)에서 CCHF 바이러스가 최초 검출된 바 있음<sup>3)</sup>. 해당 진드기는 프랑스 본토 남동쪽 섬 코르시카(Corse)에서 수십 년 동안 서식해 왔으며, '15년부터는 프랑스 본토 지중해 연안의 여러 지역(피레네오리앙탈 등)에서 서식하고 있음. 기후 변화로 인해 분포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sup>3)4)</sup>

\* 유럽 동·남부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진드기 종으로 CCHF의 매개진드기 중 하나임



\* Selon les études et données du Cirad et de l'Anses, actualisées en 2024.

그림 4-1. 프랑스 내 히알롬마 마지나툼 진드기의 지리적 분포(프랑스보건부, '24.5.23.)<sup>5)</sup>

- '13년부터 '24년까지 EU/EEA에서 CCHF 인체감염 사례 61명\*이 보고되었으며<sup>6)</sup>, '25년에는 현재까지 (~10.8.) 2개국(그리스 2명, 스페인 3명)에서 CCHF 사례가 보고됨<sup>7)</sup>
  - \* 불가리아(41명), 스페인(17명), 그리스(1명, 불가리아에서 유입), 영국(1명, 불가리아에서 유입), 포르투갈(1명)
- 그리스에서는 '08년 트라키아(Thrace)에서 CCHF 지역감염 사례(1명)가 보고된 이후 처음으로 올해 6월 테살리아(Thessaly)에서 환자(2명)가 발생함. 해당 지역에서는 이전에 보고된 사례가 없으며 바이러스 감염 경로도 확인되지 않음. 최초 감염 환자는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환자를 치료한 의료인에 2차 감염이 발생함

- 스페인에서는 올해 5월 살라망카(Salamanca)에서 환자 2명, 7월 톨레도(Toledo)에서 환자 1명 발생 보고됨
- CCHF 인체감염 사례 발생 지역은 기존에 아프리카, 발칸반도, 중앙아시아 등에서 최근 서유럽(스페인, 포르투갈)으로 확대되고 있음. 스페인에서는 진드기에서 CCHF 바이러스가 검출된 지 몇 년 후 CCHF 인체감염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현재 CCHF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음<sup>8)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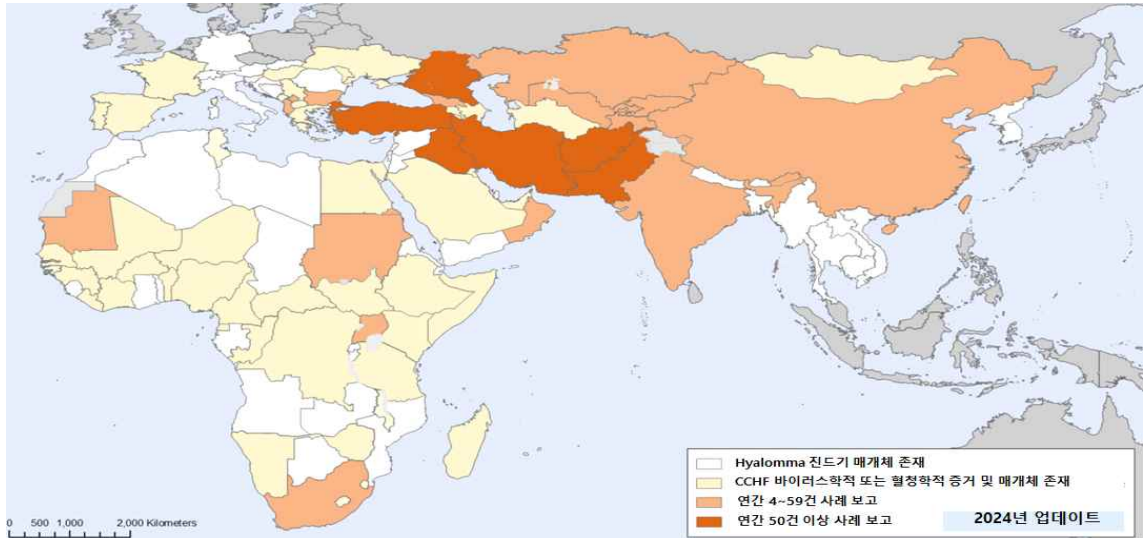


그림 4-2. 크리미안콩고출혈열의 지리적 분포(WHO/HQ, '25.4.2.)<sup>10)</sup>

### 상황 평가

- 프랑스에서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남부 지역에서 매개 진드기 및 동물에서 CCHF 바이러스가 순환 중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향후 프랑스에서 CCHF 인체감염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개 진드기 감시 등 경계 강화가 필요함
  - 현재까지 국내 CCHF 발생 보고는 없으나, 유행 지역 여행 시 진드기 물림 주의 및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함. 유행 지역 방문 후, 발열 및 기타 출혈열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신고 권고함
- \* 발열과 오한, 권태감, 두통, 전신 근육통·관절통, 오심, 구토, 설사 등

- 프랑스에서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음. 프랑스 남부 지역의 가축과 야생동물에서 CCHF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검출된 것은 남부 지역(지중해 연안 지역, 피레네 산맥 등)으로 CCHF 바이러스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함<sup>2)</sup>. 향후 프랑스에서 잠재적으로 CCHF 인체감염 사례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매개 진드기 감시 강화, 가축 및 야생동물에 대한 혈청학적 모니터링 지속 등 경계 강화의 필요성이 언급됨<sup>8)</sup>
- 앞서('24년 5월) 프랑스 보건당국은 CCHF 바이러스 통제를 위해 인간-동물-환경 간의 연관성을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 방식으로 예방 조치를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으며<sup>3)</sup>, ECDC는 EU/EEA 내 CCHF 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해당 보건당국에 정보를 제공하여 적절히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계절별 강화감시를 시행하고 있음<sup>7)</sup>

- 국내에서는 CCHF 매개 진드기 1종(불참진드기, *Rhipicephalus sanguineus*)이 발견되었으나,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 발생 보고는 없음. CCHF 유행 지역(발칸반도, 중앙아시아 등) 여행 시 진드기 물림 주의, 개인위생(손씻기 등) 철저히 예방 수칙을 준수하여 감염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CCHF 유행 지역 방문 후, 발열 및 기타 출혈열 관련 증상\*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콜센터(☎1339) 또는 보건소로 먼저 문의·신고를 하도록 권고함<sup>11)</sup>

\* 발열과 오한, 권태감, 두통, 전신 근육통·관절통, 오심, 구토, 설사 등

질병개요	크리미안콩고출혈열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sup>11)</sup>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출혈성 질환</li> <li>- 병원체: <i>Bunyaviridae</i> 과 <i>Nairovirus</i> 속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바이러스</li> <li>- 병원소: 진드기(주로, <i>Hyalomma</i> 속 참진드기)</li> </ul>
발생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건기(11월~5월)에 유행 발생, 연중 산발적 발생</li> <li>·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에서 발생 보고, '00년부터 튀르키예, 이란, 인도, 그리스, 발칸반도 국가로 발생 지역 확대</li> <li>· 풍토 국가에서 가축 감염 및 병원 내 유행 발생, 주변 국가에서 발생 보고</li> </ul>
감염경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물 → 사람)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거나 감염된 동물의 혈액 및 조직 접촉에 의해 감염, 인체감염은 야외 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거나 도살 후 감염된 동물의 혈액, 조직 접촉을 통해 감염</li> <li>· (사람 → 사람) 감염된 사람의 혈액, 체액과 직접접촉 또는 의료기구, 주사기 재사용 등 침습적 의료행위 통해 병원 내 전파 가능</li> </ul>
잠복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일~14일</li> <li>- 진드기 물린 후 1일~9일</li> <li>- 환자 혈액, 조직 접촉 후 1일~14일</li> </ul>
치명률	10%~40%
증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열, 피로감, 어지러움, 목통증 및 빠른심, 두통, 눈부심(photophobia), 구토, 설사 등</li> <li>· 심한 경우 출혈 동반, 증상 발생 2주째 사망, 생존 시 9일~10일 경부터 회복세</li> </ul>
진단	검체(혈액, 체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Real-time RT-PCR)
치료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된 특이 치료제 없음(대증치료)
예방	상용화된 예방백신 없음. 진드기 서식 가능한 환경 노출 시 긴 옷 착용 등 진드기 물림 주의,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1) Bernard C, et al. (2025) First detection of Crimean Congo Hemorrhagic Fever antibodies in cattle and wildlife of southern continental France: Investigation of explanatory factors. PLOS ONE 20(9): e0331875  
 2) Première détection d'anticorps contre le virus de la fièvre hémorragique de Crimée-Congo chez des animaux en France (CIRAD, '25.10.10.)  
 3) Fièvre hémorragique de Crimée-Congo : adoptez dès à présent les bons gestes pour vous protéger! (프랑스 보건부, '24.5.21.)  
 4) La fièvre hémorragique de Crimée-Congo, un risque d'émergence en France (프랑스 식품·환경·노동 안전청, '24.4.26.)  
 5) Fièvre hémorragique de Crimée-Congo adopter les bons gestes pour se protéger des piqûres de tiques (프랑스 보건부, '24.5.23.)  
 6) Historical data on local transmission of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in the EU/EEA (ECDC, '25.8.27.)  
 7) Seasonal surveillance of Crimean-Congo haemorrhagic fever (CCHF) in the EU/EEA, weekly report\_Week 41, 2025 (ECDC, '25.10.17.)  
 8) Fièvre hémorragique de Crimée-Congo : une menace qui s'installe en silence sous nos latitudes (Vih.org, '25.11.2.)  
 9) Première détection du virus de la Fièvre Hémorragique de Crimée-Congo dans le Sud de la France (CIRAD, '23.10.25.)  
 10) Introduction to Crimean-Congo hemorrhagic fever (WHO/HQ, '25.4.2.)  
 11) 2025 제1급 감염병 바이러스성출혈열 대응지침 (질병관리청, '25.1월)

## 참고사항

### 전 세계 H5N1형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현황('25.11.12. 기준)

구분	발생 상황
주간 신규 발생 (25.11.6.~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생 없음</li> </ul>
'25년 발생 (11.12.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8개국에서 32명 발생(사망 11명)</li> <li>- 캄보디아(17명, 사망 8명), 미국(4명), 방글라데시(4명), 인도(2명, 사망), 중국(1명), 영국(1명), 베트남(1명), 멕시코(2명, 사망 1명)</li> </ul>
전 세계 누적 발생 ('0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5개국에서 993명 발생(사망 476명, CFR 47.9%)</li> <li>- 미국(71명, 사망 1명), 캄보디아(89명, 사망 51명), 중국(57명, 사망 32명), 방글라데시(12명, 사망 1명) 등</li> </ul>
주요기관 위험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WHO(9.29.) 및 ECDC(7.4.)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에 대한 공중보건 위험을 “낮음”, 직업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감염 위험을 “낮음-중간”으로 평가함</li> <li>· 미CDC(2.28.)는 H5N1형 AI 인체감염증으로 인한 일반인구(개인 및 집단)의 건강 위험은 낮으나, 감염된 동물이나 오염된 환경에 노출된 사람은 “중간-높음”으로 평가함</li> </ul>

# 추가 정보 및 알림사항

## '25-'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안내문



### 대상

#### 어린이

2012. 1. 1. ~ 2025. 8. 31. 출생자



#### 임신부

임신이 확인된 사람



#### 65세 이상

1960. 12. 31. 이전 출생자



### 일정

#### 어린이

2회 접종 대상자 | 9. 22.(월) ~  
1회 접종 대상자 | 9. 29.(월) ~

#### 임신부

9. 29.(월) ~

#### 65세 이상

75세 이상 | 10. 15.(수) ~  
70 ~ 74세 | 10. 20.(월) ~  
65 ~ 69세 | 10. 22.(수) ~

→ 2026년 4월 30일까지 시행

### 백신

#### 3가 백신 1회 접종

단, 6개월 ~ 9세 미만 어린이 중 과거 접종력이 없거나, 기존에 1회만 접종받은 자는 2회 접종

### 기관

#### 전국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단, 접종 가능 여부는 반드시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사전 확인 필요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을 해서는 안 됩니다!

- ☑ 과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에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 인플루엔자 백신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이런 분들은 예방접종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6주 이내 길랭-바레 증후군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
- ☑ 중등증 또는 중증 급성질환자는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접종 연기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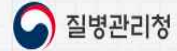
- ☑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가 빨갛게 부어오름, 통증
- ☑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 ☑ 경미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 수 있으며,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 ☑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장시간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난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2024.8.19.



#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

코로나19의 치명률은 계절독감과 유사한 0.1% 수준이나, 고령층의 치명률이 높아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일상생활에서 지켜주세요!



-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 2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기
- 3 기침할 땐 옷소매나 휴지를 사용하여 입과 코를 가리기
- 4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등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 5 사람이 많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하기

##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면 지켜주세요!



- 1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하기
- 2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 자제하기
- 3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집에서 쉬기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일상생활 가능
- 4 회사·단체·조직 등도 구성원이 아프면 쉬는 문화 만들기

###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 홍보 리플릿(대국민용)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 예방 1 옷 제대로 입고



#### 예방 2 기피제 뿌리고



#### 예방 3 풀숲 피하고



#### 예방 4 털고, 씻고, 빨래하고

##### 털고

에어컨으로 진드기 털기



##### 씻고

전신 샤워 및 진드기 찾기



##### 빨래하고

아외복 분리 세탁하기



## 3GO! 진드기는 흔적을 남깁니다!

#### 관리 1 증상 살펴보고!



고열/오한



두통



근육통



오심/구토/설사

#### 관리 2 물린 흔적 찾아보고!



검은 딱지







물린 자국

#### 관리 3 빨리 치료하고!



####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란?

-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 감염병입니다.  
\* 프쯔기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 등
- 주로 텃밭작업 등 농작업을 하거나, 등산, 나뭇채취 등의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감염위험이 있습니다.
- 발열, 근육통, 설사 등의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므로 병원 진료 시 농작업 또는 야외활동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자 5명 중  
**1명 사망**  
(2013~2019년, SFTS 기준)

의심 즉시 **의료기관 방문**





진드기!!!

진드기 매개 감염병의 최선의 예방책은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전 세계 감염병 동향」은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감염병소식> 주간발생동향에서 확인 가능

15